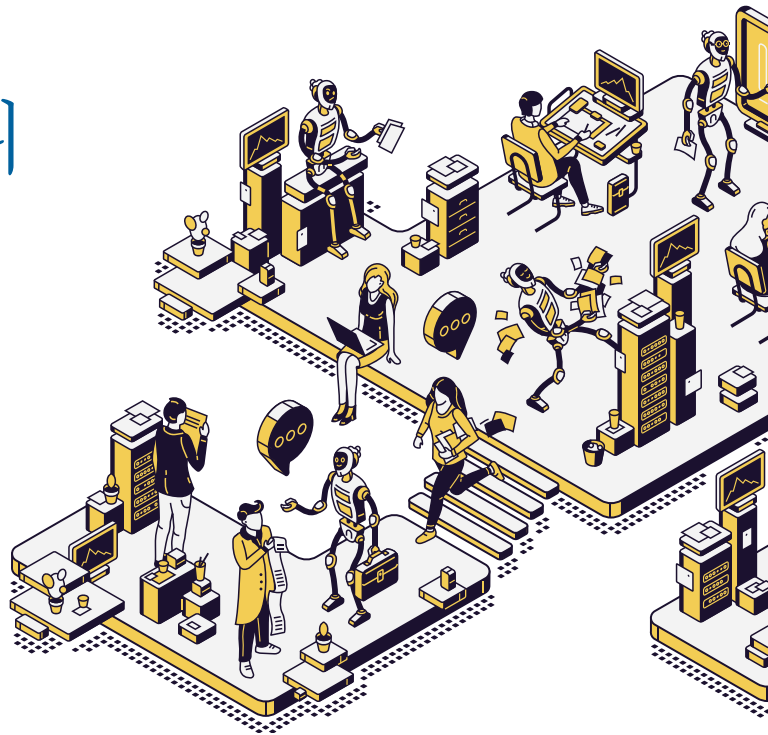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다. 이 시점에서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관점을 비교해 보면 미래의 노동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출시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대체되는 일자리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해외 유수의 전문 조사기관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미국에서 2032년까지 전체 직업의 90%가 없어지거나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일자리의 12%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생산성의 비약적 개선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 해결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미래 노동에 대한 낙관론적 입장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반면에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적으로나 일국의 사회에서 불평등하게 발전하면서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1월 '인공지능(AI)과 일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일자리 약 40%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인공지능이 약 60%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 영향을 받는 일자리의 비중이 2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향후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급속하게 발전하는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후진국 간에 성장의 격차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예측은 한 국가의 시장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은 인공지능 기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충분히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지 못해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다줄 핑크빛 미래도 매력적이지만, 함께 몰고 올 양극화나 갈등 문제도 심각해 보인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과 개인의 불안과 걱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과 비



관론은 모두 기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 중에서 기술결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술결정론은 기술이 그 자체의 고유한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한 차원 높은 경제적 윤택함을 제공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삶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공학기술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한다.

반면에 사회적 구성론 관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기술적 속성이 사전에 결정돼 있다고 보지 않고 대신에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기술의 방향, 내용, 그 결과가 사회 집단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고 해석한다. 기술결정론에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기술 속에 결정돼 있음을 강조하

지만, 사회적 구성론은 기술 발전의 궤적이 이미 기술 내에 결정돼 있다는 본질주의(Essentialism)를 비판하면서 기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회 집단들을 강조한다. 초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를 반대한 과학자들과 경영자들, 그리고 언론매체들의 가치와 목표, 집합적인 선택이 기술적 효과를 발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사회적 구성론 관점은 기술의 최초 출현 과정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지만,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인공지능 기술이 선택된 이후에 그것이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적 관계를 변경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 구조나 권력 관계에 관해서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기술결정론과 사회적 구성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기술시스템론이다. 이 이론적 관점에서는 기술이 일방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반대로 사회가 기술을 탄생시킨다기보다는, 사회가 기술 형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술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사회기술시스템에는 기술적인 것과 사회적 것이 결합해 공존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시스템들은 다른 하위시스템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시스템 전체의 목표에 기여한다. 따라서 하나의 하위시스템이 변화한다면 다른 하위시스템도 그 특성이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술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기술시스템 내에서 기술적 하위시스템과 사회적 하위시스템은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기보다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진화한다.

이세돌과 대결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개발자인 슌레이 만은 그의 저서 ‘더 커밍 웨이브’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정부와 사회가 적절히 관리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일이 규제하기보다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견제할 정책과 거버넌스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기술시스템 내의 기술적 하위시스템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제때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하위시스템인 정부, 시민 사회, 국가 간의 협력체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인공지능이 가져올 위험을 제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히려 현재의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노동이 존중을 받게 되는 사회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겠다. **노법**